**2000 Age of iron and voice of earth (Gana Art Gallery, Seoul, Korea)**

**흙 속의 하늘, 쇠 속의 사람 - ‘철의 시대⦁흙의 소리’전에 부쳐  
박신의 (미술평론가)**

흙

임옥상과 흙, 이 명제는 아주 오래된 것이다. 임옥상에게 흙은 한국의 땅이고, 구체적 현실이고, 사회적 관계를 얽어내는 몸이었다. 반공 이데올로기가 피를 토한 불순한 땅, 시대와 역사를 말하는 전봉준의 땅, 생살을 뚫고 지나간 상처보다 깊게 파인 분단의 땅, 암울한 한국사회의 병폐를 드러내는 땅, 거꾸로 대각선으로 누워있는 농민의 땅, 광고간판으로 뒤엎은 자본주의의 땅, 혁명의 불꽃이 타오르는 땅, 살아있는 땅, 어머니인 땅, 일어서는 땅.

흙은 대지의 피부이자 몸이며, 정신이자 생명 순환의 실체이다. 너른 들을 베고 누워있는 거대한 무우를 초현실적 감각으로 그렸던 그림에서 흙은 농민의 희생을 제례( )하는 제단이고, 황폐한 땅에서 새싹이 돋는 그림에서 흙은 생태계를 망친 공해산업에 생명을 주는 거름이다. 흐늘이 무너져 내리는 어두운 들판에서 지평선을 가르며 불꽃이 움직이는 그림에서 흙이란 상생의 의미를 말하는 영혼이다. '모로 누운 돌부처'에 연재된 삽화로 그려진 쓰러진 사람이 있는 그림에서 흙은 죽음 이후 또 다른 탄생을 준비하는 순환의 고리가 된다.

흙을 매개로 임옥상은 인간의 비극을 말하고 현대화의 모순을 새겨낸다. 임옥상의 흙은 기본적으로 자연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시선을 바꾸어 놓는 계기로 작동한다. 본래 자연은 인간의 소유물이 아니고 오히려 인간이 자연에 속해있었다. 그러나 오늘날의 현대사회는 인간이 자연을 공리주의로 착취하고 자본의 이윤을 위해 학대해 왔다. 자연의 주인이며 소유자라는 인간중심적 사고가 오늘날의 생태계의 위기를 자초한 것이다. 인간은 공존하는 존재다. 우리 모두는 오직 더불어 산다. 인간뿐만이 아니라 모든 삼라만상과 더불어서만이 살아갈 수 있다. 만물을 버리고 서로를 버린다는 것은 바로 죽는 것이다. 임옥상은 그 공존의 의미를 흙을 통해 말한다.

80년대 회화에서 주제와 소재의 영역에서 시작하였던 임옥상의 흙작업은 90년대 중반을 지나면서 부조 및 입체 설치로 진전해 간다. 흙이라는 재료는 형태의 결과에서 관대하고, 그 형성의 과정에서 상호신체적인 반응을 주도한다. 흙은 그대로 몸과 연결된다. 몸의 기운과 만나고, 순환하게 된다. 그런 기운으로 입체 작업을 할 때 신명이 나는 것이다. 임옥상의 시선은 이제, 한국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포괄하면서 자연과 환경의 차원으로 그 동심원을 넓혀간다.

흙으로 만든 거대한 규모의 어머니를 땅으로부터 일어서도록 한 그의 작품에서 자연의 여성적 특성을, 보살핌과 치유라는 궁극의 메타포를 구사하게 된다. 올해 전남 영암군 구림마을에 설치된 흙담은 나선형으로 꼬여 가운데로 모이는 형태이고, 가운데 감나무가 한그루 심어져 있다. 그 원형으로 인해 흙담은 우주적이고 생태학적인 상호 공존의 의미를 탁월하게 표현하고 있다. 흙담은 흙을 통해 땅의 경계선을 계속 넓혀나가 흙, 물, 식물, 동물 등에 이르는 공동체까지 포함시킨다. 사람과 땅은 결코 두 개의 독립적인 현상이 아니다. 사람과 땅의 조화로운 상태, 그리고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의 생명권이 이처럼 확인되는 것이다.

매향리 ㅡ 잘린머리

이번 전시에 출품된 <흙두>는 그런 '땅 존중' 개념이 훨씬 사회학적으로 복잡한 그물망을 타고 드러난 작품이다. 땅 존중은 자연을 인간 상호간의 관계로 연결시키는 맥락이다. 인간 사회의 모순이 첨예해질 때, 그 관계의 의미는 그만큼 폭력적인 것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잘려진 머리는 '죽임'을 말하지만, 흙이라는 재료는 '땅 존중' 이념이 던지는 공생과 상생의 의미체로 교차하게 된다. 임옥상은 그가 오랜 동안 꾸려오던 흙에 대한 메타포를 <흙두>를 통해 훨씬 강도 높게 구사하고 있다.

<흙두>가 매개하는 관계의 의미는 직접적으로 매형리에소 주어진다. 경기도 화성군에 위치한 매향리는 한국 전쟁 이래 미군이 주둔하면서 주말을 제외하고는 매일 군사작전이 집중적으로 '실습'되는 곳이다. 1952년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매향리 일대의 토지 50여만평과 연안 해안 500여만평에 미공군 전용 사격장이 조성되었다. 사격 목표물인 '농섬'을 중심으로 해상사격장이 따로 있으며, 1980년에는 지상 사격장이 해안에 새로 설치되기도 했다. 한마디로 이 곳은 한반도 내에 엄연히 존재하는 미국을 위한 치외법권 지역이다.

엄청난 비행기 소음과 폭격의 굉음이 연속으로 부서지고, 무수한 폭탄 세례로 황폐해지며 죽어가고 있는 그 곳은 주민들의 삶을 그대로 유형시의 삶으로 바꾸어놓고 말았다. 사격장에 어장과 농경지를 빼앗긴 채, 경제적 어려움은 물론 소음으로 인한 난청의 고통을 겪으며, 빈번한 오폭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피폐한 삶을 일상으로 영위해 가는 주민의 삶이 그대로 잘려진 머리로 내던져진 듯하다. 그런 표정은 <흙두> 이전에 <철두>에서 생생하게 살아난다.

<철두>는 매향리에서 직접 수거한 여러 잔해물과 사격 연습용으로 쓰였던 자동차의 철판을 분해하여 엮어서 만든 사람의 머리다. 총탄 구멍이 무차별적으로 나있는 철판은 이미 숨이 다한 매향리 자연의 시체라 할 것이다. 칼날 같은 쇠소리가 대기를 점령하는 곳, 화약 냄새로 자연의 숨결을 멈춰버리는 곳, 가상 전쟁의 상황을 공포로 재현하는 곳, 자연이 탈자연화되거나 그 신성함이 배제되어 버린 그 곳에 여기저기 널부러진 시신인 것이다. <철두>는 자연에 난 거대한 구멍이고, 흙과 광물들을 삼키고 생명의 근원을 끊어버리는 거대한 소용돌이의 진원지로 일치된다. 그 머리 속에서는 태고적 자연의 소리가 아닌 이제는 자연이 아닌 무언가가 만들어내는 불협화음에 휩싸여 아무 것도 들리지 않게 된다. 편안하면서도 활기찬 심장의 소리 대신, 사악하면서도 불길한 파괴의 소리가 전체를 지배한다.

<철두> 안에는 총알이 지나가는 탄도 장치가 설치되어 있다. 그 안으로 전쟁과 핵폭탄 실험, 광주와 한국동란의 영상물이 투사된다. 전시장 주변을 어둡게 한 후 3분 가량 폭탄 투하 등의 굉음과 함께 영상물을 투사하게 되면 영상물은 머리 안으로 집중되고, 철판의 구멍 사이로 빛이 새어나가는 상황이 연출된다. 영상물 투사가 끝나면 전시장은 다시 환해지고 치유 불가능한 상처투성이의 철두를 보게 된다.

철 - 상생-흙

철의 머리는 다시 흙의 머리와 만난다. 흙이 열린 순환의 원리라면 철은 닫힌 순환의 원리다. 철이 목소리를 잃어버렸다면 흙은 끊임없이 목소리를 생성해낸다. 철이 호흡이 끊긴 상태의 '단절'이라면 흙은 새로운 숨길을 뿜어내 주는 '연속'이자 '생성'이다. 철이 '죽임'이라면 흙은 '살림'이다. 철이 폭력이라면 흙은 사랑이다. 철이 산업이라면 흙은 농업이니. 철이 남성형이라면 흙은 여성형이다. 철이 희생이라면 흙은 헌신이다. 철이 부분이라면 흙은 만물이다. 그리고 원형(原型)이다.

흙의 머리는 철의 머리보다 훨씬 커 머리 안으로 사람이 들어가도록 되어있다. 그 머리 속은 마치 자연의 자궁처럼, 적막한 시원(寺院)처럼. 청명한 숲 속처럼, 심장처럼 생명의 온기를 담아내고 자연의 힘을 발산하는 공간이 된다. 흙은 세상 소리와 다른 소리를 만들어내는데, 그 소리는 곧 사람과 만물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생명의 노래로 되울림을 만들어낸다. 머리 안 바닥에는 머리 위에서 내리쬐는 영상이 비쳐지는데, 영상은 물에 비친 하늘에 물방울이 떨어지는 내용이다. 영상에는 바람이 일고, 그 바람 속에서 관람객은 호흡을 감지하게 되며, 호흡 속에서 치유의 기운을 만나게 된다.

철의 질병은 흙으로 치유된다. 치유의 원리는 자연의 본래적 모습에서 찾아진다. 밤이 지나면 새벽이 오고, 겨울이 지나면 봄이온다는 확신을 주는 자연의 주기적인 반복에는 무한한 치유의 힘이 있다는 것이다. 흙의 소리로, 흘그이 바람과 호흡으로, 철은 흙 안으로 들어온다. 흙안으로 들어와 철은 만물과 하나가 된다. 매향리의 잔혹한 기억와, 한구그이 분단 현실과, 폭력의 얼굴과, 상실의 역사와, 현대화의 탐욕과, 썩어가는 몸과, 죽어가는 환경과 하나가 된다. 하나됨으로써 흙의 원리를 얻게된다.

땅의 아름다움을 관조할 수 있는 사람만이, 삶이 지속되는 한 결코 끊이지 않는 힘의 저장고를 찾을 수 있다. 여기 임옥상의 오랜 꿈이 그 힘의 저장고를 채워간다.

"암흑같은 80년대, 나는 이 대지에서 꿈을 꾸었고 힘을 얻었다. 대지의 모든 기는 나를 통하여 발현되었다. 내 몸은 전극점처럼 우주와 만났다. 지구를 한바퀴 돌아 다시 나와 만났다."

흙의 소리 암흑

**2000 Age of iron and voice of earth (Gana Art Gallery, Seoul, Korea)**

**Sky in Earth, Man in Iron on the exhibition ‘Age of Iron⦁Sound from Earth’  
Park, Shin-Eui (art critic)**

*Earth*

Earth is an old theme of Lim Oksang's art. To him, earth is the land of Korea, the substantial reality and the reflection of the social relations. The land of impurity smeared with bloody anticommunist ideology, that of Jeon Bong jun. who represents the history and the times, that of division with a gorge deeper than a piercing wound, that revealing the evils of gloomy society of Korea, that of peasants lying upside down, that of capitalism covered with billboards, that burnt with the flame of revolution, that of life. that of n1other and the rising land.

Earth is the skin of the ground and its body, its spirit and the substance of life cycle. Earth represents an altar for the sacrificial rites of peasants in his painting with a gigantic radish lying on a wide field in a surreaIistic style, and manure to give life to a polluting industry which spoiled the ecosystem in the other work with sprouts on the desolate land. In the painting with flame moving across the horizon of dark field under collapsing sky, earth implies the spirit of mutual life-giving. In the series of illustrations with a man collapsing on the ground titled, 'Stone Buddha Lying on His Side', earth is the link of the life cycle to prepare for another birth after death.

With earth as a medium, Lim Oksang speaks of the tragedy of human beings and reveals the contradiction of modernization Lim's earth basically serves as the motif for a change of our view on the relation between nature and human beings. Originally, human beings have belonged to nature and nature used not to be their possession. However, in the contemporary society of today, human beings have exploited nature in the name of utilitarianism and abused it for the purpose of capital surplus. The human centered idea of master and owner of nature has courted the crises of ecosystem. Human beings are bound to be coexistent with each other. We all live together. We can live not only with human beings but also with whole nature. To abandon nature and each other means death. Lim tells us of the meaning of coexistence with earth.

From the 80's Lim started employing earth as the theme and subject matter of his painting and gradually develope it into reliefs and three dimensional installat ion during the 90's. CIay as the material of artwork is flexible in formation and leads the physical correlation in the course of formation. Earth becomes connected with body as it is. It meets the energy of body and circulates in it Working on an installation work in th is spirit, he becomes enthusiastic. Lim is now extending his outlook to the dimension of nature and environments. still inclusive of the structural contradiction of Korean society like the center of a concentric circle.

In his clay work representing the huge image of mother rising from earth. Lim employs the female property and the metaphor of care and healing of earth. This year, he made a spiral mud-wall in Gurim village, Youngamkun. Chonnam, with a persimmon tree in the middle. Owing to its circular form, the mud wall brilliantly represents the cosmic and ecological meaning of mutual life giving. The borderline of the ground was expanded by the mud wall to include the symbionts such as soil. water. plants and animals. Human beings and earth are never independent entities. The harmony of human and earth and life of all creatures on earth are confirmed in this way.

*Maehyang-ri The decapitated head*

<Clay Head> in this exhibition clearly reveals such notion of 'respect to earth' in the more sociologically complex meaning web. The respect to earth contextualizes nature in relation to correlation among human beings. The more extreme the contradictions of human society, the more violent the meaning of the relationship. The decapitated head represents 'being killed'. while clay the notions of symbiosis and mutual life-giving on the basis of ‘respect for earth' In <Clay Head>. Lim makes full use of the metaphor of earth. which he has been dealing with for long. even much more intensely.

The meaning of the relations intermediated by <Clay Head> is derived directly from Maehyang-ri. Located in Whasong, Kyongkido. Maehyang-ri has been used for firing and strafing 'drill' by the U.S. Forces Korea (USFK) everyday except weekend since the Korean War. According to The Korea-US mutual defense treaty in 1952. the 23.73 million sq. meter sea and land area in Maehyang-ri was officially granted to USFK for the bombing and strafing range exclusively used by the U.S. Air Force. There used to be the seashore shooting range around 'Nong Island' near Maehyang-ri and the ground shooting range has been set up on the coast in 1980. In a word, this is an extraterritorial area existing exclusively for the U.S. in Korea.

The constant deafening roar of air traffic and bombing devastated the village and turned the lives of the villagers onto that in exile. Having lost their fishing ground and farm land and suffering not only from economic difficulty but also from hardness of hearing due to the constant noise, they are also exposed to the danger of accidental bombing. The life of the villagers. who are mentally and physically exhausted, seems to be reflected directly in the decapitated head. Such expression can be clearly found in <Iron Head> before <Clay Head>.

<Iron Head> is made up of the wrecks collected in Maehyang-ri and the iron plates used for shooting drill. The iron plates with countless bullet holes made by indiscriminate shooting seem the dead body of Maehyang-ri's nature. They are the corpses scattered all over the place. where the air is overwhelmed with metallic clang, the breath of nature is stopped by the smell of gunpowder. the horror is recurred through the simulated combat and the nature is de-naturalized or deprived of its divinity. <Iron Head> is coincided with the fatal damage to nature and the center of horrible vortex which swallows earth and ores to destroy the origin of life. Inside the head, no sound can be heard other than discordance out of something unnatural, which is far from the sound of nature in ancient times. Instead of peaceful and lively sound of a heartbeat, vicious and ominous sound of destruction overwhelms the whole.

In <Iron Head>, the shooting equipment is installed, on which the images of war, nuclear testing, the Kwangju Democratic Demonstration and the Korean War are projected. In the darkness, these three minute images are projected with the deafening sound of bombing onto the inside of the head, and light comes through the holes on the iron plates. After the projection, the exhibition space turns lit to let the audience see the iron head with incurable wounds.

*Iron Mutual Life Giving – Earth*

The iron head encounters the clay head in turn. While earth is the basic of open cycle, iron is that of the closed cycle. While iron has lost its voice, earth endlessly generates it. While iron represents the 'disruption' of breath, earth represents 'continuation' or 'creation' of fresh breath. While iron is 'killing', earth is 'reviving' While iron is violence, earth is love. While iron means industry, earth means agriculture. While iron is masculine, earth is feminine. While iron is sacrifice, earth is devotion. While iron is a part, earth is the whole. And it is the prototype. The clay head is much bigger than the iron head so as that the audience can come in. The inside of the head turns into the place with warmth of life and energy of nature like a womb, like a lonesome temple, like a fresh forest and like a heart. Earth creates the sound, which is different from that of this world, to restore the relationship between human beings and nature and to resound as song of life. At the bottom inside the head, projected from the top of the head is an in1age of waterdrops over the sky reflected on water. There blows a wind in the projection; the audience can feel the breath and encounter the energy of healing in it.

The disease of iron can be cured with earth. The principle of healing can be found in the original state of nature. That is to day, there exists infinite power of healing in the natural cycle to convince us that dawn comes after night and spring after winter Iron intervenes in earth as if it is sound and breath. In earth, iron becomes harmonized with nature. The cruel memory of Maehyang-ri, the reality of divided Korea, the face of violence, the lost history, tl1e avarice of modernization, the decayed body, the dying environment become one, resulting in the principle of earth.

As far as only those who contemplate the beauty of earth, can maintain their life, we can find out the storage of endless energy Here, Lim Oksang fills the storage of energy with his old dream.

''During the dark age of the 80's, I dreamed on this eartt1 and got the power from it. The "Ki" or energy of the earth is revealed through myself. My body encountered with the cosmos like a electrode. We reencountered after making a round around the earth."

**2000 Age of iron and voice of earth (Gana Art Gallery, Seoul, Korea)**

**쇠와 흙 / 임옥상**

나는 쇠입니다

살아있는가 죽었는가

살아있음도 죽음도 내 잠 속에는 없었습니다

철광석으로 수 천만 년

나의 잠은 내 의지로는 깨워지지 않을

죽음보다도 더 깊고 곤한 잠이었습니다

억겁을 견뎌낼 잠이었습니다

인간이 나를 깨우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불순물이 제거된 나의 모습은 눈부시도록 아름다웠습니다

나는 무겁고 차가우며 강했습니다

극명, 완강, 명확.

나는 호미가 되고 삽이 되어

인간과 더불어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나의 행복은 너무도 짧았습니다

나는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칼이 되고 무기가 되어

상대를 찢고 베고 죽였습니다

갈수록 잔인해져 갔습니다

탱크가 되고 대포가 되고 폭탄이 되고

죽음이 있는 곳에 내가 있었습니다

죽음을 부르기 위해 나는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나를 가진 자는 힘이요, 권력이요, 문명이고

나를 빼앗긴 자는 노예요 죽음이며, 야만이었습니다

나는 드디어 고요한 평화의 땅

한국의 매향리까지 왔습니다

나는 내 살을 갈갈이 찢으며

고요를 찢고 평화를 찢어

매향리 사람들의 뼈에, 심장에 꽂혔습니다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나는 그저 살인마 일 뿐입니다

허지만 나는 결국

짠 바닷물에 곤두박질치며

녹슬어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이것이 나의 일생입니다

정말 나는 나의 임종을 이렇게 맞아야 할 것인가

나는 일어섭니다

갈갈이 찢긴 나의 육신을 모아

철 누더기로 일어섭니다

가물거리는 의식을 깨워 의지를 세웁니다

이렇게 끝날 수는 없습니다

비록 흉칙스럽지만

자유와 평화를 위해 안간힘으로 일어섭니다.

매향리 사람들을 생각하며 마지막 힘을 내 봅니다

평화와 정의를 위해

평화와 정의를 유린하는 자들에게

평화와 정의를 외칩니다

나는 나, 극명하고 완강하며 명확한

나는 쇠입니다

매향리 상징조형물 「자유의 신 in KOREA」를 세울 때 나는 이 글을 인사말로 대신했다.

나는 쇠는 그저 흙과는 대척인 관계에 있는 비생명적이고 차갑고 무거우며 무표정하고 다루기 힘든 것으로 치부해왔다. 흙과는 상극인 쇠는 나와도 무관했다. 그러나 매향리 작품을 준비하면서 나는 쇠와 매우 가깝게 되었다. 무엇인가 쇠 속에도 숨겨진 비밀 같은 것이 있었다. 쇠는 한편 난공불락의 권력이지만 산소 앞에서는 전혀 힘을 못쓰는 너무나도 무력한 존재였다. 이 허물어짐, 속수무책, 완전한 패퇴

이제 이 세상은 사람이 나서가지고는 안될 세상이 되었다. 사람이 만든 사람의 세상이지만 세상은 인간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제멋대로 굴러가고 있다. 만약 지구가 하나의 생명체라면 이젠 지구가 나서지 않으면 안될 때이다. 한때 인간에게 맡겼던 임무를 되찾아내야 할 것이다.

나는 생각해본다. 지구가 나타나 사람들에게 무언인가 할 얘기가 있다면 어떤 형국으로 현현할 것인가. 아마도 인간의 모습을 띄어야 할 것이다. 인간에게 전할 메시지가 절실하면 절실할수록 인간들이 위화감을 느끼지 않도록, 겁먹어 도망가지 않도록, 지레 외면하지 않도록 사람의 형상으로 수작을 걸어 올 것이다. 그러나 너무나 인간 그대로라면 사람의 그것으로 오해하여 듣지 못할 것이니, 적당히 인간적이면서도 지구적, 대지적이어야 할 것이다.

사람들은 땅의 교훈을 외면하고 자신들의 왕국을 만들 수 있다고 맹신해왔다. 자연의 질서와 그 부름을 귀흘려 버리고 방자하게 자신들의 방식으로 세상을 유린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야말로 흙의 소리에 귀기울여야 할 때이다.

흙이 무슨 얘기를 할지는 모른다. 그 얘기를 듣는 것은, 이해하는 것은 각자의 몫이요 임무이다. 그리고 이것은 또한 축복이다.

우리는 땅의 질서, 흙의 육성을 자신의 것으로 들을 수 있어야 한다.

쇠와 흙이 상극하는 이 세상에서 쇠가 지배하는, 흙 위에 군림하는 철의 시대에 철이 흐물거리며 스러지는 모습을 발견하면서 나는 작은 비전을 발견한다. 결코 속단하지 말고 가까이 가보라, 방치하고 무시, 무관심하지 말자. 반복해서 도전하고 부딪치자.

쇠와 흙은 무엇인가 서로가 서로에게 결핍된 것이 있을 것이다.

쇠와 흙은 서로가 서로에게 갈증을 느끼고 있는 것이 있을 것이다.

2000. 임옥상

**2000 Age of iron and voice of earth (Gana Art Gallery, Seoul, Korea)**

***Iron and Earth / Lim Ok-Sang***

I am iron

Am I alive or dead?

Neither living not death existed in my sleep

For thousands of years as iron ore,

My sleep was deeper and wearier than death

So that even my will could not wake me up.

It could have continued for all eternity,

If mankind hadn’t knock my door.

Taken off all the impurities I was glaringly beautiful.

I was heavy, cold and strong.

Rigorous, unbending clear-cut.

As a hoe, as a shovel,

I was happy being with human beings.

Yet my happiness didn’t last long.

Against my will,

I became a knife and a weapon.

I ripped, slashed and butchered

I became more and more brutal

A tank, a cannon, a bomb...

I found myself wherever death existed.

My role was to summon death.

Power, authority and civilization possessed me,

And slavery, death, savagery were deprived of me.

I even found myself at Maehyang-ri

In Korea, the land of Morning Calm.

My body was torn into pieces,

And the pieces became daggers,

That broke calmness and crushed peace,

And that went through the bones and stabbed the hearts of the Maehyang-ri people.

Against my will, I was nothing but the perpetrator of ghouls.

Eventually,

I fall down th the salty seawater,

And rust out.

Ah! This is the last days of my life.

But in the hour of my death

I raise myself up.

I gather the torn pieces of my body,

And stand up in iron rags.

I rouse my faintly consciousness into my volition.

I cannot end my life in this way.

I struggle to raise myself up for freedom and peace.

I squeeze out the last strength in me, thingking of the people of Maehyang-ri.

For peace and justice,

Towards those trample upon peace and justice,

I shout,

Return my will to me,

I am... rigorous, unbending, clear-cut

Iron.

I addressed this writing at the inauguration ceremony of The God of Freedom in KOREA, a symbolic artwork for the incident of Maehyang-ri.

I had regarded iron as something that was diametrically opposed to earth, that is, something lifeless, cold, heavy, blank and unmanageable. Being antipodal to earth, the medium of iron had nothing to do with me. But I became closer to iron while I was making the work. There I found something hidden behind the surface of iron. It has impregnable power, yet it became powerless in the presence of oxygen. There it falls down helplessly.

Now mankind ought to keep itself out of this world. The world has been created by mankind, but now it escaped the hands of mankind. It bears no relation to mankind. If the earth has life of its own, now is the time it should come forward. It should restore its duty, with which it has entrusted mankind.

How should the earth embody itself when it decides to tell mankind what it has to say? I believe it should put on the human appearance. The more serious its message is, it had better look like a human being so that human beings won’t be threatened or scared by its presence and thur their heads away. When it resembles mankind too much, however, mankind might ignore it. Thus I assume it should possess humanity, yet at the same time maintain its own properties of Mother Nature.

People have never doubted even for a minute that they can construct their kingdom without paying any attention to the lessons of the earth. Thrning their backs on the order and words of nature, they are devastating the world. But it is urgent to lsten carefully to the words of earth.

No one knows what earth will say. But it is our task and duty to strain our ears to and understand the story that earth tells.

We should be able to embrace the order of the land and the sounds of earth.

In the current time of iron, iron already started to melt down, and there I see a shimmering hope.

Do not leap to a hasty conclusion. Just go near to it. Do not neglect or ignore it, but constantly observe it.

Iron and earth can compensate each other.

Earth and iron can quench each other’s thirst.

2000. LIM, Ok-Sang